



# 김윤기·김승미 선교사의 좋은 기별



65호 | 2023년 4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잠 25:25)

”물질 세상에서 깨어진 것은 가치를 잃는다고 말한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건 버려진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깨어진 것이 귀하다. 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낸다.”

-윌리엄 맥도널드 <깨어짐, Lord, Break me> 中

타국에 살아가는 **이방인**은 더욱 인간적 **연약함과 부족함**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적 관점은 우리를 낙망케 하지만 영적인 진리의 눈으로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2023년 4월을 맞이하며 좋은 기별 65번째로 깨어진 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동역자 분들께 나누입니다.

## Fortifie toi et prends courage!(강하고 담대하라!)

코로나로 인해 2019년 1월의 겨울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대면집회를 개최할 수 없었는데 감격의 **첫 대면 수련회**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무너졌던 캠퍼스 사역의 회복을 소망하는 상황**에서! 무슬림 95%의 이슬람 국가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면**으로!! “강하고 담대하라”(수 1:6)는 주제로 불어권 최고의 강사인 **Anzardi Gilles 목사**(JDM France)를 모시고 50여명의 대학생들과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생 운영체제로 준비되는 수련회인 것을 감안할 때 2019년 겨울 수련회를 참석했던 사람들이 10% 정도 뿐이어서 걱정이 많았지만 감사하게도 훈련된 소수의 지체들이 소그룹 리더와 찬양인도 및 프로그램 책임을 담당해 주어 순적하게 수련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졸업한 학사**들이 찾아와 **신한 영향력**을 끼친 것 입니다. **레오 형제**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사업 중 도전을 해야 하는 시기마다 대학시절 JDM에서 훈련받았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간증이 학생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칸타 형제**도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 무슬림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기독교에 대



한 일말의 영향도 받지 않으려고 고향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알려진 카톨릭 재단 고등학교에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미국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후 회심을 한 그였지만 그의 가정과 주변이 모두 무슬림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변화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다카르 국립대학교에 오면서 JDM을 만났고, 공동체에 함께 살면서 그의 신앙은 급성장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비전을 갖고 2년 전 지역 시장 선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무슬림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도전이 수련회에 참석한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4년 만의 대면수련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마침 미국 애즈배리 대학교 채플에 있었던 **성령의 부흥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망하기는 세네갈 다카르 캠퍼스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 캠퍼스 그룹 미팅



<좌> 리더들 미팅 우> 신입생들 미팅

먼저는 수련회를 섬겨주었던 **리더 그룹들(엘리, 필로망, 에밀, 정, 시몽, 파트리샤)**을 만나 격려 했습니다.(3월 11일) 코로나 이후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이 공동체의 선한 문화를 만들어가기 때문이고 이들의 헌신을 새로운 세대들이 본받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JDM 공동체에 들어온 **신입생들**도 만났습니다.(3월 20일) 신입생들은 **9명**으로 대부분 시골에서 유학 온 친구들입니다. 학생들을 만날 때 조심스러운

것은 '무엇을 먹을까'입니다. 학교 식당밥은 한 끼에 200세파(500원)입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으려면 1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식당에서 먹려고 하는데 한 끼 단가가 학교 밥보다 몇 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혹여 시험에 들까 메뉴 선택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도 신선한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고민하여 햄버거(1500세파, 3200원)를 선택했는데, 신입생들의 반응이 떨떠름했습니다. 알고 보니 상당수가 햄버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게 여긴 햄버거가 그들에게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것 같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햄버거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할 때 늘 **새로운 도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 카프린 센터를 보며 꾸는 꿈

지난 기도편지를 드린 후에 바로 카프린에 다녀왔습니다. 까올락 대학교 카프린 캠퍼스 신입생들이 열린 문 센터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김삼환 목사)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회(송정남 권사)**에서 열린 문 센터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을 위한 헌금을 그날 보내주신 것 입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보내주셔서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의 섬김으로 마련된 음향장치>



그날 장학생 사역의 대상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한 여학생과 의 대화 이후 사역적으로 고민해 보는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10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살고 있는데 학교를 오기 위해 한 시간을 걸어서 도로까지 나와야 하고 또 버스를 타고 오는 왕복 소요시간이 대략 4시간 정도이다 보니 무슬림 부모님들은 그냥 딸이 공부를 포기하고 집안 일을 돌보다 시집을 가길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문득 멀리 사는 학생들을 위한 **하숙집**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그 생각만 하고 다카르로 돌아왔다가 지난 주(3월 16일)에 다시 카프린에 방문하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사**가 있으면 왕복 4시간을 소요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무슬림 가정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학생들이 다카르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면 JDM 공동체에서 성경을 배우며 **도합 7-8년 정도 그리스도인으로 훈련**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열린 문 센터는 선임선교사 때 예산 부족으로 1층 도서관만 지었고, **2층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 2층을 기숙사처럼 만들면 이 꿈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꿈만 꾸입니다. 왜냐하면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건물 소유 계약서**를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신청한 때가 2019년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이 건물을 정부에 뺏기고 맙니다. 건물 소유 계약서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오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기숙사 사역을 할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기뻐하시고 청소년 기숙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준비되면 이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좌:카프린 고등학교에서 만난 학생들, 우: 중단된 열린문 센터 2층 상황>

## 꼬르키 마을 화재 이재민 구호품 전달

**꼬르키 마을**은 카프린 사역자 **이부라이마 목사**의 고향이며 현재 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3주전 **화재**가 발생하여 집 8채가 완전히 전소되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가구와 생필품들이 전부 소실되어 어려움에 빠진 이재민들이 생겼다는 얘기에 선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다카르 한인교회에서 구호물품과 현금을 보내와 이재민들에게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밤바라, 세레, 풀족이 함께 모여사는 꼬르키 마을>

건기 때는 화재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이 마을의 **유일한 기독교인**인 이부라이마 목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진리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만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향한 **구호의 손길**도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꼬르키 마을에 제2, 3의 이부라이마 목사가 생겨나길 기도합니다.



## 다가오는 일정들

3/27-30일까지 교단 선교단체인 **GMS 사헬 서부지부**(감비아, 세네갈, 말리, 기니비사우, 모리타니)모임이 세네갈 '살리'에서 있습니다. 타국이었던 참석하기 어려웠을텐데, 세네갈에서 모이게 되어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입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의 사역 나눔을 통해 좋은 배움과 위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월 둘째 주에는 캠퍼스 리더를 훈련하는 **디모데 훈련학교**(매주 금요일 저녁)를 시작합니다. 다카르 국립대학교의 학사 일정이 일정하지 않아 그에 따른 훈련 커리큘럼을 정하는게 쉽지 않지만 주어진 상황 안에서 온전한 제자도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현재 엘루와, 자골린, 제르망, 정, 필로멘 5명이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이 학업의 부담 가운데 제자훈련을 열정으로 시작하고 훈련을 충성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년 **5월 1일은 JDM 가족의 날로 홈커밍데이**입니다. 재학생들과 졸업한 학사들이 함께 모여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에 대해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장무싸, 이부라이마 목사가 이 행사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사**가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 주아온설네 소식

세네갈 출국 한 달 전 임신 사실을 알리며 저희를 깜짝 놀래켜서 태명을 '**깜짝이**'로 했던 생명이 **2월 23일**(38주차+4일) 유도분만으로 오전 10시 28분 저희 품에 드디어 안겼습니다. 세네갈 출국을 위해 임신 중임을 모른 채 황열병 주사를 맞았었고, 자궁 근종이 8cm까지 자라서 제왕절개를 해야 할 지로 모른다고 했고(아프리카에서 몸에 칼을 대는 수술은 피해야 한다는 주변분들의 얘기 속에) 노산(만42세)인 상황, 무엇보다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프리카 의료진에 대한 염려 등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주시는 수많은 동역자 분들이 계셨기에 모든 것이 **순적**했고, 출산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셋째의 이름은 **온설(따뜻할 온, 말씀 설)**입니다. 온설이가 이 세상에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시고, 출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최고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아는 3주 전에 학교측의 연락으로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 영어반 선생님이 참석하는 **특별 상담**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늘지 않으면 내년엔 진급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했는데, 내년엔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 다시 적응을 해야한다면 문화 충격이 더 클 것 같아 저희들도 더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언어가 늘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온이는 학년이 낮아서 학교측 상담은 없었지만 동일한 상황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세네갈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정착을 잘** 해야 저희도 이 곳에서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아와 아온이의 학교 적응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요 3:34)

저희가 세네갈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길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 되길 기도 부탁 드리며 좋은 기별 65번째를 마무리 합니다.

## 2023년 4-5월 기도제목

1. 디모데 훈련 커리큘럼(4월 둘째 주 시작)을 잘 확정하고 훈련받을 자결린, 까르망, 엘루와, 필로망, 정이 열정으로 훈련에 임하며 충성스럽게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2. 카프린 열린 문 센터(Centre de Porte ouverte) 건물 소유계약서가 속히 발급되고, 청소년 기숙사 사역에 대한 비전이 준비되게 하소서
3. 김승미 선교사가 출산 후 건강을 잘 회복하고 다시 육아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경건의 관계를 풍성히 유지하도록
4. 주아와 아온이에게 언어의 진보를 허락하시고 학교 생활에 잘 정착하여 세네갈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세네갈 다카르(Dakar)에서 2023년 3월 25일  
김윤기, 김승미 선교사(주아온설) 드림

세네갈 캠퍼스 제자운동 밴드  
<https://band.us/n/aca98011haL6l>

김윤기 선교사 221+77 549 4595  
카톡ID jooane2013

김승미 선교사 221+77 474 4967  
카톡ID freesmk69

집 연락처 221+33+823 4511  
후원계좌 국민은행 361402-04-166791  
(김윤기)

